

한글맞춤법



한글 맞춤법

- 한국말을 통일된 한글 표기로 적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칙
-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하여 공포한 ‘한글맞춤법 통일안’을 1988년 문교부가 확정 고시(제88-1호)하여,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

한글 맞춤법

제1장 총칙

제2장 자모

제3장 소리에 관한 것

제4장 형태에 관한 것

제5장 띄어쓰기

제6장 그 밖의 것

부록 문장 부호

총칙

-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3항 외래어는 '외래어 표기법'에 따라 적는다.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,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것
- 즉 음소 문자에 의한 표기 방식을 의미함
- 결국 표준어를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한글맞춤법의 근본 원칙

Ex) 땀, 구름, 하늘, 나무, 놀다, 달리다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노래가 낫기는 그 중 나아도
구름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,
네 발굽을 쳐 달려간 말은
바닷가에 가 멎어 버렸다.
활로 잡은 산돼지, 매(鷹)로 잡은 산새들에도
이제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.

꽃아, 아침마다 개벽(開闢)하는 꽃아.
네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,
물 낫 바닥에 얼굴이나 비취는
헤엄도 모르는 아이와 같이
나는 네 달힌 문에 기대섰을 뿐이다.

문 열어라 꽃아. 문 열어라 꽃아.
벼락과 해일(海溢)만이 길일지라도
문 열어라 꽃아. 문 열어라 꽃아. - 서정주, 꽃밭의 독백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花

- ① [꼬사]
- ② [꼬다]
- ③ [꼰아]
- ④ [꼬차]
- ⑤ [꼬자]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

꽃이 예쁘게 피었다.

[꼬치]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형식(문법) 형태소가 뒤에 오느냐 - ‘꽃이’
실질 형태소가 뒤에 오느냐 - ‘꽃 안에’

‘**꼬차, 꼬차**’로 적지 않는 이유?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- ‘꼬치’로 적을 경우 쓰기는 쉬워도, 읽을 때는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.
- **꽃도**[꼬또], **꽃만**[꼰만]도 ‘꽃’과 ‘도, 만’을 구별해서 적으면, ‘꽃’과 ‘도’, ‘만’이 결합한 말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.
- **독서의 효율성**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.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→ ‘어법에 맞게 적는다’

-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말
- 각 형태소가 지닌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, 그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 것

뜻이 잘 나타나도록
형태를 고정해서 일관되게 적는다

제1항 소리대로 적고, 어법에 맞게

① → ② → ③

| 표준어 | 소리 나는 대로 | | 어법에 맞게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|
| ‘꽃이’[꼬치] | [꽃이] | [꼬치] | 꽃이 |

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

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

아버지가방에 들어가신다.

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.

②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.

1) 아버지(가) 가방에 들어가신다.

2) 아버지 가방에 (누가) 들어가신다.

띄어쓰기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!

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

상명대학의과대학부속병원

상명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

띄어쓰기는 문장의 의미파악을 쉽게 하기 위함이다!

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

외래어란?

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

- ‘외래어’는 외국어가 한국어 속에 들어와서 ‘한국어화’한 것을 일컫는다.
- 한국어화란 외국어가 한국 사회에서 널리 쓰이며, 한국어의 음운, 문법, 의미 체계에 동화한 것을 의미한다.

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

- 여러 언어에서 들어오는 외래어는 화자들 사이에 발음이 나 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, 외래어 표기법은 어떤 외래어에 대하여든지 한국어의 어문 규범에 따라 완전히 한국어의 하나로 다루겠다는 의미를 지닌다.

I. 소리에 관한 것

제1절 된소리

제5항 **한 단어 안에서** **뚜렷한 까닭 없이** 나는 **된소리**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.

[ㄱ, ㄲ, ㅃ, ㅅ, ㅆ]와 같은 된소리 발음이 날 때,
된소리(경음)로 적어야 하는가
예사소리(평음)로 적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!!

제1절 된소리

* 다음 단어들을 읽어 보세요.

가. 으뜸 [으뜸] 거꾸로 [거꾸로] → 모음 사이

나. 잔뜩 [잔뜩] 훨썬 [훨썬] → 울림소리 ‘ㄴ, ㄹ, ㅁ, ㅇ’ 뒤에

다. 쑥덕 [쑥떡] 몹시 [몹씨] → ‘ㄱ, ㅂ’ 받침 뒤에



경음화 현상

예사소리(평음)가 된소리(경음)로 바뀌는 현상



‘ㄱ’이나 ‘ㅂ’의 영향을 받아서 언제나 된소리로 나는 ‘다’와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지 않음.

'한 단어 안'이란?



독배기

형태소



곰

+

배기

형태소

형태소

제1절 된소리

‘눈꼽’인가요?

X

‘눈쌀’을 찌푸리다.

X

‘눈곱’인가요?

O

→ ‘눈’과 ‘곱’이라는 두 형태소의 결합

‘눈살’을 찌푸리다.

O

→ ‘눈’과 ‘살’이라는 두 형태소의 결합



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한 경우에는, 대체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그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음.

제5절 두음법칙



- 두음법칙(頭音法則)
단어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소리에 관한 법칙

- 남북한 언어에서 가장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음법칙과 관련된 표기

우리의 한글 맞춤법 → 두음법칙 인정 **O**

북한의 문화어 → 두음법칙 인정 **X**



제5절 두음법칙



두음법칙

국어에서 말의 첫머리에 오는 자음이 본래의 소리를 잃고 다른 음으로 발음되는 일

두음법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

- ① ‘ㄴ’이 ‘ㄱ, ㅋ, ㆁ, ㄷ’와 결합하면 어두에 오지 못합니다.
- ② ‘ㄹ’이 어두에 오지 못합니다.

★ ①, ②와 같은 두음법칙은 주로 한자어에서 일어납니다.

제5절 두음법칙



두음법칙 (1)

‘녀, 뇨, 뉴, 니’ — ‘여, 요, 유, 이’



용례 보기

여자(女子)

남녀(男女)

유대(紐帶)

결뉴(結紐)

요소(尿素)

당뇨(糖尿)

익명(匿名)

은닉(隱匿)

많이 틀리는 예)

年

[해 년]

첫머리일 때

연도(年度)

연말(年末)

첫머리가 아닐 때

만년(晩年)



한글 맞춤법

제5절 두음법칙



두음법칙 (2)

‘랴, 려, 례, 료, 류, 리’ — ‘야, 여, 예, 요, 유, 이’



용례 보기

양심(良心)



개량(改良)

역사(歷史)



수력(水力)

예의(禮義)



사례(謝禮)

용궁(龍宮)



쌍룡(雙龍)

유행(流行)



하류(下流)

이발(理髮)



도리(道理)

성씨에서 두음법칙 예외 인정(개인이 선택 가능)

량기탁(梁起鐸)

려운형(呂運亨)

렴온동(廉溫東)

류관순(柳寬順)

리이(李珥)

— 두음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

제5절 두음법칙



두음법칙 ③

‘라, 래, 로, 뢰, 루, 르’ — ‘나, 내, 노, 뇌, 누, 느’



용례 보기

낙원(樂園)

쾌락(快樂)

내일(來日)

거래(去來)

노인(老人)

연로(年老)

뇌성(雷聲)

지뢰(地雷)

누각(樓閣)

고루(高樓)

능묘(陵墓)

선릉(宣陵)

제5절 두음법칙

11항, 12항 [붙임1] 단어의 **첫머리 이외의 경우**에는 **본음**대로 적는다.

개**량**(改良) 선**량**(善良) 수**력**(水力) 협**력**(協力)
사**례**(謝禮) 혼**례**(婚禮) 와**룡**(臥龍) 쌍**룡**(雙龍)
하**류**(下流) 급**류**(急流) 도**리**(道理) 진**리**(眞理)

극**락**(極樂) 거**래**(去來) 왕**래**(往來) 부**로**(父老)
연**로**(年老) 지**뢰**(地雷) 낙**뢰**(落雷) 고**루**(高樓)
광한**루**(廣寒樓) 동구**릉**(東九陵) 가정**란**(家庭欄)



제5절 두음법칙

11항 다만, **모음**이나 **‘ㄴ’ 받침** 뒤에 이어지는 ‘렬, 룰’은 **‘열, 율’**로 적음

나열(羅列)

나렬

치열(齒列)

치렬

비열(卑劣)

비렬

분열(分裂)

분렬

선열(先烈)

선렬

백분율(百分率)

백분률

❖ 모음이나 ‘ㄴ’ 뒤에서 ‘렬’, ‘룰’이 발음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발음을 중시한 것

II. 형태에 관한 것

IV. 그 밖의 것

제5절 준말

오랫만에 (X)

'오랫동안'과 혼동하지 마세요!

오랜만에 (O)

'오래간만에'의 준말

: 어떤 일이 있을 때로부터 긴 시간이 지난 뒤.

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

김치찌개

▼ 표준국어대사전 검색

인쇄

찌개01  발음 듣기

활용 정보:

■ 목록 보기

「명사」

죽배기나 작은 냄비에 국물을 바득하게 잡아 고기·채소·두부 따위를 넣고, 간장·된장·고추장·젓국 따위를 쳐서 갖은 양념을 하여 끓인 반찬.

① 찌개를 끓이다/찌개를 데우다/찌개에 밥을 비벼 먹다/찌개 국물이 적다.

VI. 그 밖의 것

먹을게

표준국어대사전 검색

-을게

활용 정보:

「어미」

((‘ㄹ’을 제외한 받침 있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))

(구어체로) 해할 자리에 쓰여, 어떤 행동에 대한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.

¶ 그 사람은 내가 **말을게**. / 남은 밥은 내가 **먹을게**.

「참고 어휘」 -ㄹ게.

Ⅵ. 그 밖의 것

- 제 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(ㄱ을 취하고, ㄴ을 버림)

| ㄱ | ㄴ |
|---------|---------|
| -(으)ㄹ거나 | -(으)ㄹ꺼나 |
| -(으)ㄹ걸 | -(으)ㄹ꼈 |
| -(으)ㄹ게 | -(으)ㄹ께 |
| -(으)ㄹ수록 | -(으)ㄹ썅룩 |
| : | : |

다만,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들은 된소리로 적는다.

-(으)ㄹ까? -(으)ㄹ꼬? -(스)ㅂ니까? -(으)리까? -(으)ㄹ쏘냐?

제2절 어간과 어미



이것을 많이 틀려요

‘-아’를 ‘-애’로
잘못 쓴 말들

오늘 눈이 올 것 같**애**.

X

오늘 눈이 올 것 같**아**.

O

친해지길 바**래**.

X

친해지길 바**라**.

O

너 때문에 놀**랬**잖아.

X

너 때문에 놀**랐**잖아.

O

Ⅳ. 그 밖의 것

제56항 ‘- 더라, - 던’과 ‘- 든지’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.

1.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‘- 더라, - 던’으로 적는다.

ㄱ

지난겨울은 몹시 춥더라.
깊던 물이 얕아졌다.
그렇게 좋던가?
그 사람 말 잘하던데!

ㄴ

지난겨울은 몹시 춥드라.
깊든 물이 얕아졌다.
그렇게 좋든가?
그 사람 말 잘하든데!

- ‘더-’와 ‘던’은 **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**을 현재로 옮겨 전달할 때 쓰임
- 이 때의 ‘-더’와 ‘-던’을 ‘-드, -든’으로 잘못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
IV. 그 밖의 것

제56항 ‘- 더라, - 던’과 ‘- 든지’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.

2.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지 아니하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‘(-)든지’로 적는다.

ㄱ

배든지 사과든지
마음대로 먹어라.

가든지 오든지 마음대로
해라.

ㄴ

배던지 사과던지
마음대로 먹어라.

가던지 오던지 마음대로
해라.

- 선택의 의미를 지닌 ‘든지’, ‘든’을 과거 경험과 관계된 ‘-던지’, ‘던’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

제5절 준말

2 연속하는 두 모음이 축약되는 경우

★ (다)를 살펴봅시다.

(다) 집에 가면 안 **돼요**. / 합격했다니 참 잘 **됐다**.



용례 보기

본말

되어요 / 되었다

뵈어요 / 뵈었다

씨어요 / 씨었다



준말

돼요 / 됐다

뵈어요 / 뵈었다

썰요 / 썰다



모음 ‘ㅂ’과 ‘ㄴ’이 연속될 때에는 ‘ㅂ’으로 축약

제5절 준말



국립국어원
표준국어대사전

찾기 자세히 찾기

▼ 표준국어대사전 검색

웬01 | [원 :]

활용 정보:

「관형사」

「1」 어찌 된.
¶ 웬 영문인지 모르다/웬 까닭인지 몰라 머리동절하다/웬 걱정이 그리 많아?/웬 눈이 이렇게 내리니?

「2」 어떠한.
¶ 골목에서 웬 사내와 마주치다/웬 놈이야, 떠드는 놈이?/개가 짖는 바람에 그다. ≪이기영, 고향≫
※ ‘웬 사람이 널 찾아왔어.’나 ‘웬일로 그러지?’의 ‘웬’을 ‘왠’으로 적는 것은 잘못이다. ‘웬’으로 적는다.

제5절 준말



찾기

자세히 찾기

표준국어대사전 검색

왐지

활용 정보:

「부사」

왜 그런지 모르게,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.

¶ 그 이야기를 듣자 **왐지**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./아내는 **왐지**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./
라 **왐지** 멋있어 보인다./술은 알맞게 취했으나 **왐지** 기분은 유쾌하지 않았다./경민은 그녀가
말이 정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. <홍성원, 육미오>/담임 선생님을 까닭 없이 **왐지**
왐지 가슴이 섬뜩해 걸음을 멈추었다. <이문열, 변경>

※ '왐지'는 '왜인지'에서 줄어든 말이므로 '왐지'로 써야 한다. '웬지'를 쓰는 것은 잘못이다.

III. 띄어쓰기

III. 띄어쓰기

➤ 조사와 접사, 어미 vs. (의존)명사

① 조사와 접사, 어미는 앞 말에 붙여 쓴다.

② (의존)명사는 앞 말과 띄어 쓴다.

III. 띄어쓰기

➤ 조사

- ① 이곳은 [상명대학교입니다 / 상명대학교 입니다.]
- ② [5시부터 / 5시 부터] [7시까지 / 7시 까지] 계속됩니다.
- ③ [노래는커녕 / 노래는 커녕] [말하기조차 / 말하기 조차] 어렵다.
- ④ 다른 [회사보다 / 회사 보다] 늦게 끝납니다.
- ⑤ “알았다.”라고 / “알았다.” 라고] 하셨습니다.

★ 조사 : ‘입니다(이다), 부터, 까지, 커녕, 조차, 보다, 라고’ 등

III. 띄어쓰기

➤ **의존 명사**는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

ㄱ. 할 **수** 없이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.

ㄴ. 어찌할 **바**를 모르겠다.

ㄷ. 우리는 먹을 **것**이 부족하다.

ㄹ. 회의 **중**이오니 조용히 해 주십시오.

III. 띄어쓰기

✓ 의존 명사가 ‘조사’, ‘어미’, ‘접미사’ 등과 형태가 같아서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

- ① 의존명사와 조사
- ② 의존명사와 어미
- ③ 의존명사와 접미사

III. 띄어쓰기

➤ 의존명사와 조사 통용

1. 당신 좋으실 **대로** 하세요. (의존 명사)

너는 너**대로** 나는 나**대로** (조사)

2. 열심히 노력할 **뿐**이다. (의존 명사)

과제를 한 사람은 철수**뿐**이다. (조사)

III. 띄어쓰기

➤ 의존 명사와 어미의 통용

3. 친구를 만난 **지** 한참 되었다. ‘지’ (의존 명사)

제시간에 도착**할지** 모르겠다. ‘-ㄴ지’ (어미)

제시간에 도착했**는지** 모르겠다. ‘-ㄴ지’ (어미)

4. 목표를 수행하는 **데** 기여할 것이다. ‘데’ (의존 명사)

텔레비전을 보고 있**는데** 누가 왔다. ‘-는데’ (어미)

III. 띄어쓰기

➤ 의존 명사와 접사 통용

5. 그런 **식**으로 하면 곤란해. **‘식’ (의존명사)**

이게 한국**식**이야. **‘-식’ (접사)**

4. 내가 가려던 **차**에 전화가 왔다. **‘차’ (의존명사)**

나는 연구**차** 출국했다. **‘-차’ (접사)**

III. 띄어쓰기

➤ 수 표현

★ 숫자를 적을 때는 ‘만(萬)’
단위로 띄어 쓴다!

ㄱ. 스물여섯

ㄴ. 십이억 V 삼천사백오십육만 V 칠천팔백구십팔

III. 띄어쓰기

➤ 숫자와 단위 명사

ㄱ. 금 서 V 돈, 바둑 한 V 판, 버선 한 V 족, 신 두 V 켤레

ㄴ. 십여 V 만 V 명, 십 V 년여, 두 V 시간여

★ ‘-여’는 접사이므로 앞
말과 붙여 쓴다.

- 숫자 뒤에 쓰인 단위를 나타 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 말과 띄어 쓴다.
- 다만 순서를 나타내거나 숫자와 쓰이는 경우 붙여 쓸 수 있다.
(ex 두시 삼십분 오초, 삼학년, 10개, 100원 등)